



Hello, my name is Sr. Annette Frey, born to George and Mary Catherine, the second of eight children. My vocation had roots in a very Catholic family. I felt the call to be a religious sister from about 10 years of age. My father was the second of 13 children, four who were called to religious life. I was the second grandchild born into the tight knit Frey clan where I was at home with aunts and uncles that weren't that much older than I! (I have 81 cousins and the Frey Reunion continues to be a yearly highlight when a few hundred of us gather.)

Although I entered to teach, during the novitiate we cared for the infirm sisters. It was at this time I was asked if I would consider nursing. I said, "I came to do God's will," and the rest is history. In those days the 15 bed wards were "the long term care." Because of our love for the elderly another nurse and I spent time together devising ways to improve life on the ward. When asked to go on for my Master's Degree, it seemed natural to choose gerontology. This was before gerontology was a discipline. However, I found the Institute of Gerontology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here I interacted with many different disciplines. The Director, a Minister was helping the sisters in the area develop retirement programs. I was fortunate to be part of the gathering. Conditions have definitely improved for the elderly in the 48 years since I graduated from the U of M!

My heart heard the call to be with the underserved in another way fifteen years ago. An opening for an RN at Rendu Services led me to Fayette County. In serving the underserved we had contact with many different agencies. It was Roy Sarver, Director of the St. Vincent de Paul Store whose prayer led to the opening of Mary House, a transitional home for women who are homeless and struggling with many issues. When Roy came to our community, we

explored the idea and Sr. Jean and I opened the doors March 1, 2016.

It takes many years to truly learn to "let go and let God" be the driving force of the "moment!" How that is needed in a world where ideals seem to be unraveling and a ministry built on helping others begin life anew!





안녕하세요! 저는 아네트 프라이 수녀(Sr. Annette Frey)입니다.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메리 캐서린(George and Mary Catherine) 슬하에 여덟 명의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의 성소는 신심 깊은 가톨릭 가정인 우리 가족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저는 10살쯤부터 수도성소로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저의 아버지는 13남매 중 둘째였는데 그중 네 명의 형제가 성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프라이 집안은 친척들이 매우 가깝게 지내는데 집안의 둘째 손녀였던 저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삼촌과 고모들과 함께 한집에 살았어요. 사촌이 81명이나 되고 가족들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프라이 가족 만남의 날에는 거의 수백 명이 모인답니다!

저는 입회하여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련기 동안에는 우리 수련자들이 연로한 수녀님들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간호사도직에 대해 고려해보라고 하셨지요. 저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 15개의 병실이 ‘장기간호’를 위한 병실이었습니다. 다른 간호사와 저는 연로한 수녀님들을 무척 사랑했고 그 병동에 있는 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노인학을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했지요. 그때는 노인학이 학과목이 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노인학 연구소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를 찾았고 많은 다른 분야와도 함께 접목하여 교류했습니다. 연구소 담당자는 그 지역의 수도자들이 은퇴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후 48년 동안 노인들을 위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전에 제 마음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부르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랭두 서비스(Rendu Services)에서 간호 봉사를 시작하면서 파예트 카운티(Fayette County)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요.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많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일을 했어요. 여성 노숙자들 및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쉼터인 마리아의 집(Mary House)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성 빈센트 드 폴 스토어(St. Vincent de Paul Store)의 책임자인 로이 사버의 기도를(Roy Sarver, Director of the St. Vincent de Paul Store) 통해서였습니다. 로이가 우리 공동체에 오고 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6년 3월 1일 진 오거스틴 수녀님(Sr. Jean Augustine)과 제가 함께 마리아의 집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순간’의 원동력이 되시도록 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과 꿈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사도직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